■ 광주 5년간 성폭행 범죄 분석해보니

북〉서〉동〉광산〉남구 順 매년 20%씩 증가

'성매매 방지법' 나온 2006 급증…'풍선 효과'

검거율 64% … 대부분 피해자 신고로 붙잡아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매년 20% 이상씩 성폭행(강간)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된 2006년에는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이 오히려 성폭행이라는 '풍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가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지난 5년간 481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3년 70건에서 ▲2004년 84건(20% ↑) ▲2005년 102건(21% ↑) ▲2006년 131건(28% ↑) ▲2007년(10월 현재) 94건 등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북구가 전체 발생건수의 33.9%인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47건(30.6%) ▲동구 113건(23.5%) ▲광산구 42건(8.7%) ▲남구 16건(3.3%) 순이었다. 〈표〉

광주 성폭행 사건 발생지도

(2003~2007년 10월)

※( )안은 검거건수

발생 대비 검거 건수는 309건으로 검거율은 64.2%에 그쳤다. 전체 발생건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03건(83.8%)으로, 피해자 신고가 범인을 붙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반증했다.

하지만 성폭행을 한 후 금품까지 빼앗는 '성폭행 후 강도사범'은 72건 중 13.8%인 10건만 해결돼 검거율이 뚝 떨어졌다. 이 같은 미검 현상은 성폭행 강도사범의 재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범행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다,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성폭력상담소' 측은 "성폭행범의 경우 성도착이나 사회부적응 같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격리'시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정 현실"이라며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적절한 정신 치료 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광주시내를 돌며 5년간 46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38·광주시 북구)씨를 구속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찾아낸 DNA 분석 결과 또 다른 '발바리'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청소년성범죄자 사진 공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내년 2월4일부터는 성범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실제 거주지·직업 및 직장 소재지·사진·소유차량 등록번호까지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름·나이·생년월일·직업·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돼 왔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광주는 5명, 전남은 17명으로 사진작가·생활복지사가 각 1명씩 포함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서 '미션 임파서블'

절도범 은행 천장 뜯어내고 침입…미수에 그쳐

절도범이 광주의 한 은행 지점에 침입했다가 경비업체 직원에게 들켜 달아났다가 뒤늦게 검거됐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0시50분께 북구 K은행 두암지점에 양복을 입은 남자 1명이 침입했다.

범인은 은행 후문 입구 1층 계단 여자화장실 옆 청소도구함 창고에서 석고보드(50×35㎝) 한 장을 뜯어내고 천장 사이의 공간을 통해 2~3m 가량 기어들어가 문서고로 들어갔다.

문서고에서 객장(客場)까지 침입한 범인은 돈을 훔치려고 왔다갔다하던 중 무인경비 시스템을 건드렸다. 하지만 경보음을 듣고 3분 만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김모(43)씨와 맞닥뜨리자 흉기로 위협, 정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은행에서 입수한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머리카락이 길고 양복 등을 착용한 것에 주목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발생 낮 시간대 객장을 촬영한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 외모가 동일한 김모(26)씨가 이날 오전 객장을 사전 답사한 것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검거,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20억 대출 사기' 법무사 사무장 구속

서부경찰 수사 확대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광주시내 임대아파트 2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속여, 금융권에서 20여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본보 11월21일자 7면〉 광주 모 법무사 사무장 송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알선책 허모(여·6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19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농협과 신협 외 다른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씨 등은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2천만~3천만원을 주고 구매한 아파트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꾸며 광주시내 농협과 신협 등 30여 곳에서 세대당 7천만~1억원까지 대출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7364〉 김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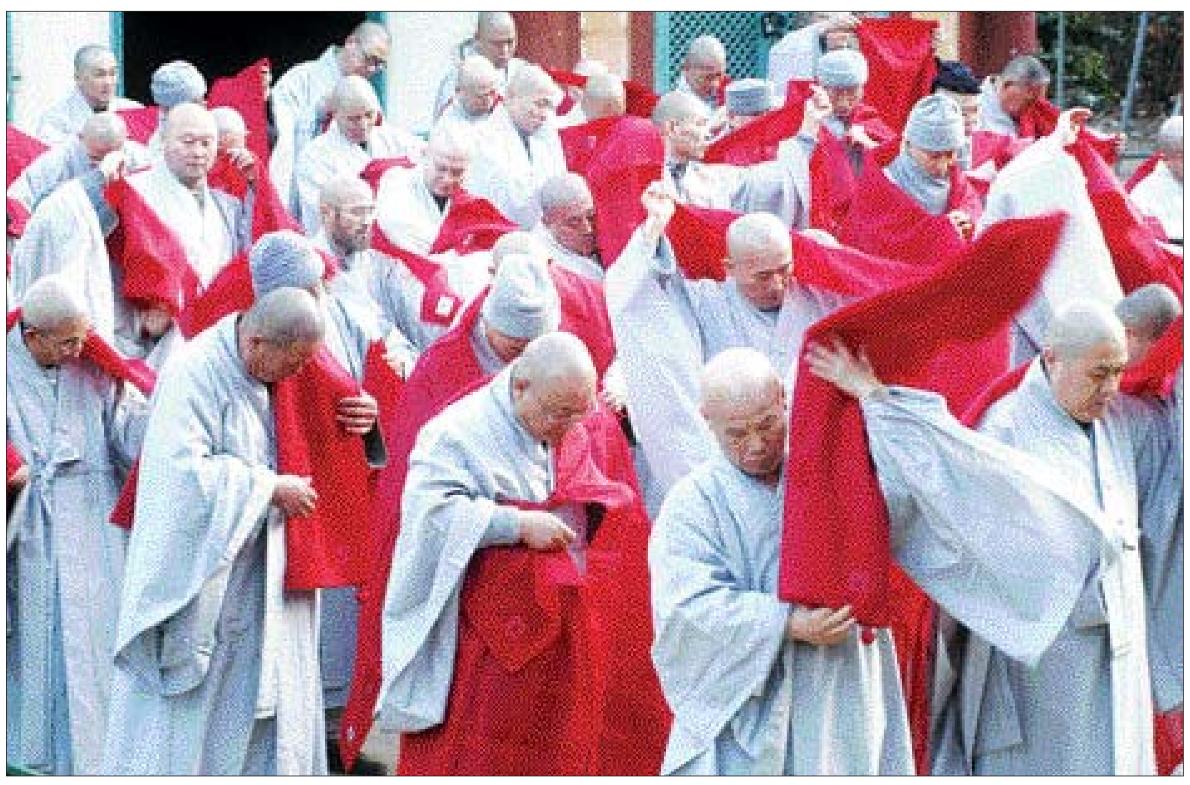
자동차전용道 횡단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21일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숨졌다"며 김모씨의 가족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예상해 급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1차로 중앙에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별다른 안전 표지 없이 서 있었던 점,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주~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몽골인을 친 후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이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선암사 구족계 수계 법회 한국불교 태고종 순천 선암사에서 21일 열린 구족계(具足戒) 수계산림 법회. 이날 140여 명의 비구와 비구니들은 계율(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을 지키며 수행에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족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자격을 온전히 갖춘 출가자가 된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입자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 받고 전세권 설정해 놓아야 안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사기 사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

경찰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전입신고를 할 때 법률상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確定日字)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인 금융권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권)도 3천500만원 이하의 보증금만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세입자도 1~2년이 걸리는 소송과정 동안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세권자의 권리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같으나 '등기권리증'(집문서) 상에 '전세권' 설정 여부가 기재되기 때문에 불법 대출 등 사기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수능 수험생 부모, 감독 교사 폭행

쌍나팔

○…한 대입수험생 학부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신의 아들이 답을 다 기입하지 못했는데도 답안지를 걷어갔다며 당시 감독관인 교사를 찾아가 폭행.

○…수능이 치러진 지난 15일 인천시 강화군 모 중학교에서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보던 재수생 A군은 시험시간이 끝난 후 답안지를 빨리 제출하라는 감독관 B(36)교사에게 "10초만 더 달라"고 요구를 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답안지를 제출.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그날 저녁 학교에 남아있는 B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다음날에는 어머니가 교무실로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은 B교사의 고소에 따라 당시 목격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등 수사에 착수. /연합뉴스